

전남대 제22대 이근배 총장 취임식

“지역 혁신 넘어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



4년 임기...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 등 역임 대학 조직개편 단행...미래 혁신정책 활발성 추진

전남대학교 제22대 이근배 총장의 취임식이 26일 오후 3시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지방문·정병석·정성택 전임 총장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류혜경 전남대 총동창회장 및 역대 총동창회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등 주요 인사와 전남대학(원)장,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근배 총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26년 간 교수로 몸담아온 모

교에서 총장으로서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1952년 장학이념을 되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 전남대를 더욱 굳건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통’과 ‘지역 상생’을 강조하며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전남대를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근배 총장은 전남대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교수로 24년간 재직하면서 전남대 직선제 초대 교수회장 및 평의원회 의장, 거점국립대 교수회연합회 회장, 호남·제주 국립대학교 교수연합회 상임회장,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학계와 고등교육 정책 수립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 왔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2월까지이며, 지난 2월26일 취임 후 조직개편 등을 단행하는 등 대학의 미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PEOPLE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박매호(후자연구과미래 대표) 곡성 농업분과 정책자문위원 위촉

전남도의회 농업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박매호(후자연구과미래 대표)가 곡성군 민선8기 정책자문위원 농업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곡성군은 최근 군청 소통마루에서 민선8기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조상래 군수는 올해 군정 운영방향 설명 및 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안내하고 박매호(후자연구과미래 대표)를 비롯한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 종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총 30여명을 5개 분과(정책개발, 농업, 보건복지, 문화 관광, 산업 경제) 정책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곡성 군정의 주요 현안과 지역발전 시책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고 소통 창구를 다양화해 지역 특화형 정책개발 및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기구이다.

송대영 기자 sdw0918@gwangnam.co.kr

주민자치회 동구협의회, 성평등 문화 확산 ‘앞장’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협약...6월까지 성인지 교육 실시

주민자치회 동구협의회와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6일 동구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동구협의회와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최근 성인지 교육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 마을 내 성인지 감수성 확산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전문 강사를 구성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자치회 동구협의회는 교육 참여를 독려하며 마을 단위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교육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13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민 리더의 성인지 감수성 이해, 마을 내 성평등 사례 공유, 민주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역할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뿐만 아니라 향후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교류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



성인지 교육 업무 협약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호성 주민자치회 동구협의회회장은 “성인지 감수성은 마을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며 “주민자치회가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택 정장은 “주민자치회와 광주여성가족재단이 함께하는 이번 교육이 지역 주민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주민이 적극 참여해 성평등 가치 실현의 주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영 기자 styl235@gwangnam.co.kr



영광새마을금고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영광군에 현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영광새마을금고, 이웃사랑 성금 300만원 기탁

영광군은 최근 영광새마을금고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현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신임 이정재 이사장의 취임식을 간소화해 아낀 비용으로 마련돼 더욱 의미가 크다.

영광새마을금고는 느티나무봉사대를 결성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기부, 사랑의 헌혈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정재 이사장은 “취임 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금고로 거듭나기 위해 첫 행보를 저소득층을 위한 기탁으로 시작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일 군수는 “이정재 이사장과 직원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하신 성금은 저소득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 대한체육회 지방 순회간담회 성료

종목단체·구체육회 임직원 등 참석...실질적 변화 기대

광주시체육회는 26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2025년 상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한민국 체육계 수장으로 당선된 유승민 제42대 대한체육회장과 전갑수 시체육회장을 비롯해 구체육회와 종목단체 임직원, 선수 및 체육지도자 대표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지방체육 발전을 위해 소통했다.

유승민 회장의 이번 광주 방문은 유 회장의 공약 중 하나인 지방체육회 자립 및 활성화의 일환이다. 당선 이후 지방체육회 순회를 첫 업무로 꼽고

추진하게 됐다. 특히 유 회장은 자신의 공약 및 추진계획 등을 직접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하며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체육회 및 종목단체 자립성 확보를 통한 동반성장 △선수-지도자 스포츠커넥트 시스템 도입 △학교체육 활성화와 프로젝트 △생 활체육 전문화를 통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 △글로벌 별 중성 K-스포츠 등이 포함됐다.

시체육회는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 확대 △선거 운영제도 개선 △은퇴선수 및 체육지도자 프로그램



광주시체육회는 26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2025년 상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개발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과 학생선수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건의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시도별 순회간담회 종료 후 기능 여부 및 추진상황 등의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광주 방문을 환영하며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대한민국 체육의 부활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주연 광주시회 입주자대표 역량강화 워크숍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최근 광주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서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동대표, 자생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현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주체의 중요한 업무인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법 이해 및 사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또 홈페이지 운영·관리, 전기충전차 관리, 수도배관 청소 등에 대한 내용도 다뤘다.

이완주 기술이사는 장기수선계획수립에서 계획을 3년마다 조정해야 하고, 이를 경과하기 전 장기수선계획 조정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홈노코너운이 전자투표, 설문조사 등을 무료 설치키로 전국아파트연합회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한재웅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장은 “아파트는 자치단체와 같이 다양한 민원이 발생한다.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앞으로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영 기자 sdw0918@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집센터. 문의 062-374-2818. ▲지적장애인 성인 주·아간보호 서비스=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봉사 함께 할 광주VIP라이온스클럽 회원=심신 건강한 남·여 환영. 문의(회장) 010-3223-4311. (총무) 010-3365-0065.

은세 (음력 2월 28일)

48년생 투자는 실시간으로 체크하라 60년생 명예도 좋지만 충분한 휴식 취하라 72년생 내 뜻과 맞지 않아 조금씩 진다 84년생 간사한 꾀로 귀하를 속이고자 한다 96년생 아이템이 핫수고에 그치게 될 것 51년생 과감히 잇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 63년생 고생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리라 75년생 아이디어 성공창조가 보인다 87년생 일에서 해방감 맛보는 날 99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54년생 임시 방편적이러면 무의미하다 66년생 도움을 받는다던 희망이 생긴다 78년생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 90년생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57년생 분수에 맞게 임해야 복도 따른다 69년생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데서 찾으라 81년생 인간관계의 갈등속에 허덕이는 날 93년생 화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49년생 이익을 나눠 갖는것이 확실하다 61년생 일에 방해꾼이 있으니 살피라 73년생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라 85년생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97년생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으니 주의 52년생 서로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64년생 믿는 도기에 발등 찍힌다 76년생 문서에 미련을 갖지 말 것 88년생 호기가 주어졌을 때 취하는 것이 좋다 55년생 만만찮은 상대가 나타나서 힘들 날 67년생 힘들게 일한 만큼 결실도 알차겠다 79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정진하라 91년생 가슴 잃이지 말고 상의하라 58년생 빛 속속으로 상심하게 된다 70년생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결정하라 82년생 현실의 상황에 적응이 필요한 것 94년생 이성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50년생 투기성 있는 일에는 손대지 말라 62년생 평 먹고 알 먹는 일이 보인다 74년생 상태는 양호하나 걱정말라 86년생 경제성은 활동 반경을 축소시킨다 98년생 친구 문제로 자리에 누울 수도 있다 53년생 배우자에게 말로 해야 알이든 법 65년생 자녀에 대해 세밀한 관찰하라 77년생 돈 문제는 해결된다 89년생 귀가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라 56년생 나의 과오를 시인하고 사과하라 68년생 보태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보이라 80년생 명분부터 확실하게 세울 시기 92년생 한결같이 인정받게 되리라 59년생 어제의 지인이 오늘의 적이 될 것 71년생 지나침이 없이 정도를 지키라 83년생 문서에 미련을 갖지 말 것 95년생 여행·출장을 삼가는 것이 좋다